

불자 세상보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세계화 이전에 자기부터 바로 알자

현재 대학 내에서 사용되는 '세계화'라는 용어는 주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와 직결돼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영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면, 이를 세계화가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으면서 건국한 대한민국의 생태적 속성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는 그대로 '세계화'와 등치(等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원천과, 경제의 원동력, 군사적 힘을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한국은 이런 현상이 자연스런 추세일 것이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는 중요한 스펙이 된다.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는 언어소통이 전부 아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다양성 인정부터 제국주의 근성부터 없애야 이뤄져 한국불교 순수하단 오만도 버려라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첫째는 사상, 문화, 역사, 인종 등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절대주의적, 중심주의적, 원리주의적 등의 발상은 세계화와 거리가 멀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려(配慮)'란 '정의(正義)'와 짝을 이룬다. '정의'에는 '이성'이나 '원칙' '평등' 등의 정서가

지배하는 반면, '배려'에는 '감성' '예의' '보살핌' 등의 정서가 작용한다. 셋째는 상대를 나에게 포섭하려는 소유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세계화'라는 발상 속에 들어 있는 '제국주의적 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불교가 있었음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한국의 불교도는 자신들의 불교가 어떤 역사 속에서, 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되어야 한다. 나의 전통과, 나의 색깔, 나의 모습을 모른 채, 남과의 소통만을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 소통의 도구인 '영어로 말하고 글쓰기'에 편중된다면 필자가 제시한 '세계화'와 모순된다.

독자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불교의 역사는 길지만 근현대 사회 속에서 심한 굴절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불교는 조선시대 500여 년 간을 필박당했고, 일제강점기

에는 세속화됐다. 건국 이후에도 1950~1953년 사이에는 6·25가 있었고, 1954년부터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초법적인 담화문으로 불교계의 분쟁 등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발행한 <조계종사>에서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불교계는 불법(不法) 폭력(暴力) 급조승(急造僧)의 배출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도 숨어두고 남은 것 왜곡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됐다. 예를 비롯한 각종 의례의 전통, 참선 간경 염불로 상징되는 수행의 전통, 수계와 포살과 참회 등 교단 운영의 전통, 소의 경전과 그 해석에 관계되는 교학 전통, 승려 교육의 과정과 방법, 이런 등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가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숨겨진 전통을 찾아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불교가 최고라는, 우리 불교가 순수하다는 자국 중심주의적인 폐쇄적인 생각을 쉬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불교의 세계화'라고 생각한다.

社說

매주 창간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1994년 10월 15일은 본지가 불자들에게 첫 선을 뵈 날이다. 올해로 열일곱 돌을 맞는다.

창간에 즈음한 때, 본지 회장인 한 마음선원 대행 스님은 "한국의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범문했다.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을 출범시킨 뜻이었다.

창간 이후 본지는 불교계 언론에 많은 변화를 선도해왔다. 교계 최초로 자체적으로 편집 인력을 운용하며 디자인이 가미된 지면을 소개해 왔고, 교계 최초의 색채지 발행으로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교계 최초의 인터넷 부타뉴스(現.현불뉴스)와 포털 부타피아(buddhopia.com) 등.

현재에도 본지는 교계 언론 가운데 최다 지면(매주 32면)을 발행하고 있다.

'초발심자경문'에서 "첫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바른 깨달음의 자리이다(初發心時便正覺)"라고 했다. 무명에 가리워져 어리석기 그지없는 중생일지라도 부처가 되겠다고 보리심을 발한 그 순간만큼은 부처와 다름없다는 말씀이다.

창간 제17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가족들은 불보살님과 독자 제현께 두 손 모아 합장발원한다. 대장경을 새기던 각자의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해 보도하겠다고. 매주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는 독자 제현의 가정에 범행이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

'직관과 단순함'으로 포교를

조계종이 9월 27일~10월 3일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방문단은 지구 반대편의 그곳에서 만난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에서 영롱한 불심(佛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에 즈음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서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포교 전략만으로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종단 교구제도의 점검과 직할교구 강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교전략이 소프트웨어라면, 교구제도와 직할교구 역할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6일 애플사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 아이폰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조

계종 총무원의 성명처럼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하드웨어에 치중해 핸드폰을 판매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상생을 통한 새로운 문화였다.

반면에 조계종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교구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전략도 부재한 실정이다.

조계종이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앞에도 성명을 낸 것에 많은 이들이 사회화망의 또 다른 발로라며 환영하고 있다. 애도의 시류에 편승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가 실천했던 '직관과 단순함'도 배우길 바란다. 그래야 수도권 불자들의 불심도 살리고, 세계인의 불심도 끄집어 낼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박준운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카지노 자본주의와 7재

미국 뉴욕의 월가는 카지노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만하다. 이 월가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 부자들의 탐욕, 99%가 막자"라고 하면서 금융권의 탐욕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는 보스턴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증폭시키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고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금융자본주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인간 살릴 새 경제 패러다임 절실 부처님은 7재(財) 가르침 설해 나 재물의 효용가치 깊이 고민할 때

불교 경전에는 7재(財)의 가르침이 종종 발견된다. 칠재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거룩한 덕목을 재물에 비유한 것으로, 신재(信財)란 정법을 신수(信受)하는 신이라는 재물, 재재(財財)란 계율을 지니는 계라는 재물, 참재(慫財)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참이라는 재물, 괴재(愧財)란 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괴라는 재물, 문재(聞財)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듣는 문이라는 재물, 시재(施財)란 모든 것을 보시하여 불물이 없는 시라는 재물, 혜재(慧財)란 마음을 거두어 지혜롭게 재법(諸法)을 비추어 아는 혜라는 재물이다.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기 위한 일곱 가지 덕목을 왜 하필이면 재물에 비유했을까? 일반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의해 부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수행자는 여러 수행 덕목에 의해 부처가 되어 해탈과 열반을 누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재물의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재물의 진정한 효용가치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재물이라는 비유는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의 기준이 '자유와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필시 부처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이제 '재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인식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칠재'의 해석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주지하다시피, 첫째,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둘째,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셋째, 바르게 번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 경제'는 이기적 욕망의 무한 추구가 아니

라, 자리아타의 대승 보살 정신을 구현하는 데 그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보살경제' 또는 '자리아타의 경제'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경제관념을 정립하는 데 이 칠재의 가르침은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칠재의 의미를 재음미해 보도록 하자.

첫째, 신재는 믿음의 재물이다. 둘째, 재재는 계율에 바탕한 재물이다. 재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서 는 안 된다.

셋째, 참재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참(慫)의 재물이다.

넷째, 괴재는 남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괴(愧)의 재물이다.

다섯째, 문재는 문(聞)의 재물이다. 여섯째, 시재는 보시의 재물이다. 재물은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할 때 그 본연의 가치를 실현한다.

일곱째, 혜재는 지혜의 재물이다.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다. 재물의 운용에 있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적 통찰을 명심해야 한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마가목 가지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를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한국불교 알평승가회 가입 환영 귀의 삼보하옵고 석가세존의 자비실천을 바탕으로 위국 애민하는 마음으로 호국불교 이념을 견지하고 경주이씨 표암 알평공 시조를 기리기 위하여 경주이씨 문중 승려모임을 주창하는 바 후손들로 승단을 이루어 청정한 모임을 갖고자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4차 모임을 가졌으며 회원스님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5회 모임 일시 장소 * 모임일시 : 불기2555년 11월 22일 정오(12시) * 모임장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182-2 범용사 * 자격조건 : 알평공 후손 중 승려(비구, 비구니) 환영 * 신청방법 : 알평승가회 신청양식 1통, 사진 1매 * 입회비 없음. (2개월 1회 모임, 회비 3만원) * 연락처 : 회장 : 010-5290-4209 사무총장 : 010-3900-3050 * 문의처 : 053) 325-0400. 팩스 : 325-4848 한국불교 알평승가회 명예회장 / 만옹도일 큰스님, 영공도성 큰스님 회장 원각 합장